

2012년 1분기 IT산업 리스크 분석

I. IT산업 수출입 현황	4
II. 반도체 산업 동향	6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6
2. 전망 및 주요 이슈	9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12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12
2. 전망 및 주요 이슈	16
IV. 휴대폰 산업 동향	20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20
2. 전망 및 주요 이슈	23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진권 (3779-6670)
ljinguhan@koreaexim.go.kr

< 요약 >

□ 1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353.3억 달러

- 유럽 재정 위기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단가 개선 지연 등으로 연속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반도체는 연속 4분기, 디스플레이 패널은 연속 5분기 수출이 감소했고, 휴대폰도 해외생산 증가로 7개월 연속 수출량 감소
- 1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6.1% 하락한 163.5억 달러

□ 1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119.6억 달러

- D램(25.8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 단가는 Elpida 파산 신청이후 1달러 帶를 회복했으나, 전년대비(△45.7%)로는 여전히 낮아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 낸드플래시(5.1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는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 시스템반도체(19.9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모바일AP (Application Processor) 수출 증가로 31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가
- 국가별 D램 시장 점유율은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67%로 1위 유지

□ (이슈)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 안정으로 한국기업 수혜 늘어날 전망

- 하반기 수요 증대 효과, 업체들의 공급 조절 등으로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은 안정에 들어설 전망
 - 낸드플래시 기업들의 생산 라인 전환, PC용 D램 감산 및 엘피다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공급량 축소 등으로 공급은 줄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PC 수요 증대로 수요는 늘어날 전망
- 반도체 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시장 과점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
- 한편 마이크론(미)의 모바일 D램 3위 기업인 엘피다(일) 인수로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도전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 **1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한 70.7억 달러**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 둔화 및 이구환신(以舊換新) 종료 (전자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11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른 중국 수요 부진의 영향
- 향후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4월~5월초) 추진,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국의 수입관세가 4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이슈)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의 축은 태블릿 PC와 OLED**

-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태블릿PC 및 울트라북의 기존 노트북 시장 대체 등으로 중소형 디스플레이가 향후 시장 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
 - 2011년 8,160만대 수준이었던 태블릿 PC 시장은 2016년에는 노트북 시장을 넘어서 2017년 약 4억 2,490만대까지 성장할 전망
- 색재현력, 저전력에 우수하고 플렉서블 제품 구현에 유리한 OLED는 올 하반기 55인치 TV를 내놓으며 크게 성장할 전망
 - 2011년 약 35억 달러 규모였던 OLED 시장은 2012년에는 69억 달러, 2016년에는 2011의 5배 수준인 17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1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한 42.6억 달러**

-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모두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계획 확대에 따른 국내 휴대폰 생산 감소로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
 -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11년 1분기 69%에서 4분기 80.1%로 확대

□ **(이슈) 스마트폰 출하 비중은 증가,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은 감소**

-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어 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휴대폰 생산에서 스마트폰의 비중도 삼성전자 52.3%, LG전자 36% 등으로 향상
-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 확보, 시장 적기 대응 등을 이유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생산거점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수출 감소는 지속
 - 해외 생산 증가에 의해 월간 약 7~8억 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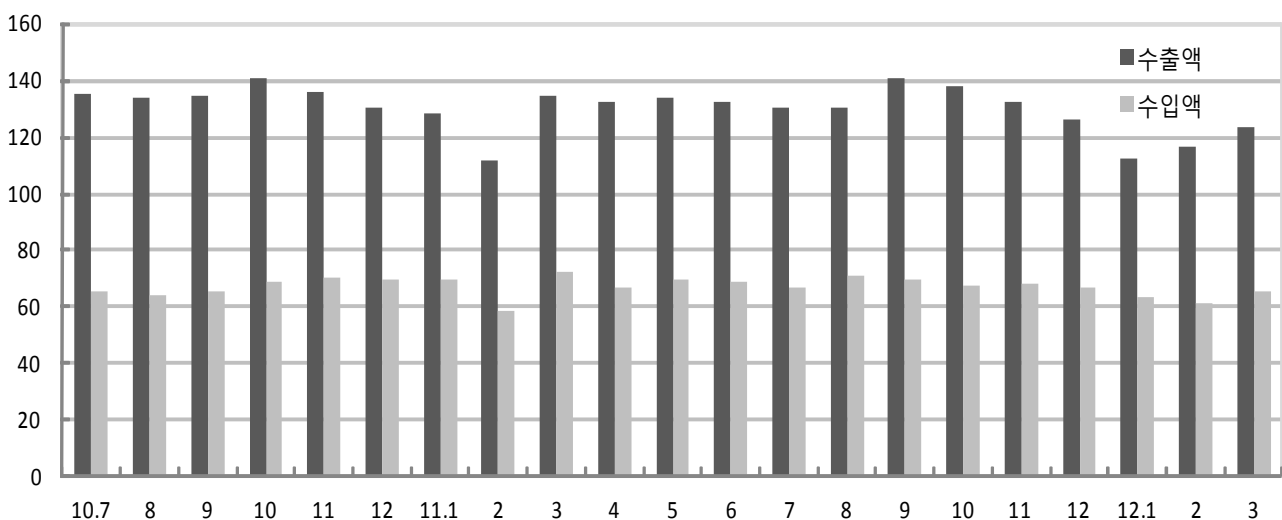
I. IT산업 수출입 현황

□ 1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353.3억 달러

- 2012년 1분기 IT 수출은 지난해 1분기 374.7억 달러보다 21.4억 달러 감소한 353.3억 달러 기록
 - 유럽 재정 위기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단가 개선 지연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연속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반도체는 연속 4분기, 디스플레이 패널은 연속 5분기 수출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휴대폰이 해외생산 증가로 7개월 연속 수출량이 감소
- * IT수출액(분기, 억달러) : ('11.1) 374.7→(2) 399.0→(3) 402.2→(4) 395.8→('12.1) 353.3
- * IT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1.1) 8.9→(2) 3.9→(3) △0.4→(4) △2.8→('12.1) △5.7
- 1분기 IT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4% 하락한 189.8억 달러 기록
 - 시스템 반도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기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수입은 감소
- * 국내업체의 내수시장점유율('10.4Q →'11.4Q, %) : (휴대폰) 80→ 84, (PC) 52→ 62

IT산업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 산업	IT 산업
2009년	1분기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분기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3분기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분기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연간	3635.3	1209.5	-7.8	3230.9	620.1	-15.6	404.5	589.4
2010년	1분기	1010.9	344.1	47.2	981.3	170.3	34.0	29.6	173.8
	2분기	1202.5	384.0	31.3	1057.4	183.9	19.6	145.1	200.1
	3분기	1171.2	403.9	21.3	1056.9	194.8	14.1	114.3	209.2
	4분기	1289.5	407.5	16.3	1161.2	208.7	23.8	128.3	198.9
	연간	4674.1	1539.5	27.3	4256.8	757.7	22.2	417.3	782.0
2011년	1분기	1,310.1	374.7	8.9	1,236.2	200.6	17.8	73.9	174.1
	2분기	1,443.3	399.0	3.9	1,343.6	205.2	12.4	99.7	193.8
	3분기	1,422.4	402.2	-0.4	1,354.3	207.4	6.5	68.1	194.7
	4분기	1,428.5	395.8	-2.8	1,313.6	201.9	-3.2	114.9	193.9
	연간	5,577.7	1,569.7	2.0	5,244.6	815.2	7.8	333.1	754.5
2012년	1분기	1,349.60	353.3	-5.7	1,333.40	189.8	-5.4	16.2	163.5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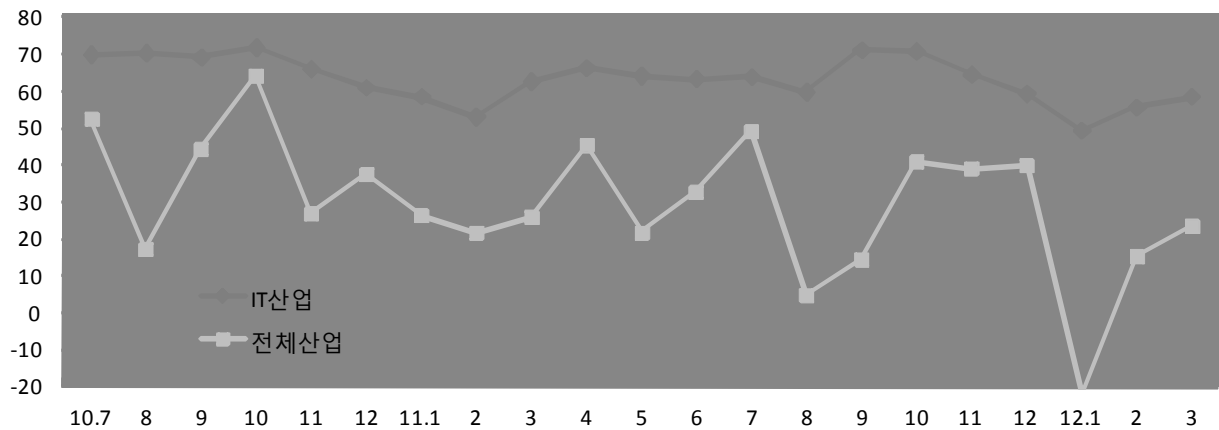
- 향후 IT 수출은 D램 가격회복,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 중국 노동절 특수 등 수출환경의 긍정적 개선으로 전년대비 약 3~4% 증가된 1,600억 달러대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와 휴대폰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월평균 7~8억불 감소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 1분기 IT산업 무역 흑자 전년동기 대비 6.1% 하락한 163.5억 달러

- 1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163.5억 달러로 전체 산업 무역흑자 16.2억 달러를 10배 상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6.1% 하락
- 휴대폰(35억 달러), 반도체(41.4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54억 불) 등 대표 품목들 모두 수출은 하향세나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적자 대표 품목이었던 시스템반도체는 2011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 유지

IT산업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IT통계포털(www.itstat.go.kr)

II. 반도체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1분기 세계 D램 반도체 매출, 전분기 대비 2.8% 감소한 62.7억 달러

-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1분기 D램 반도체 매출액은 62.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8% 감소
 - D램 가격의 안정화가 유지되었고 업체들의 공정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가동률이 향상돼 기존 1분기에 비해 수익률 하락이 줄어들었다.
-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41.4%로 전 분기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3%p 하락, 매출액은 약 9% 하락했지만 D램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 실현
 - 삼성전자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매출에서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D램의 비중이 높아, 모바일 D램 가격 하락으로 매출액 감소는 컸으나, 영업이익률은 12%를 기록
- 전문가들은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D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반등으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모바일 D램 가격 하락도 완화될 전망이다 38나노 공정으

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 시장 안정화에 돌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 강화된다는 것

- 엘피다는 매출에서 비중이 높은 범용 D램의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시장점유율을 전분기 대비 0.3%p 늘리며 3위로 자리 바꿈.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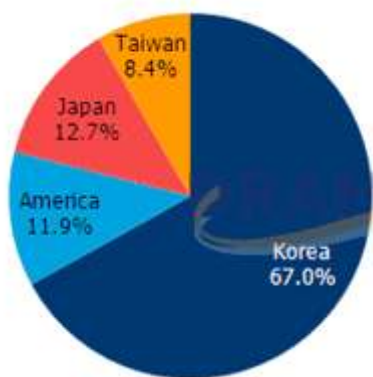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1Q12	4Q11	QoQ	1Q12	4Q11
1	삼성전자	2,597	2,858	-9.1%	41.4%	44.3%
2	하이닉스	1,501	1,505	-0.3%	23.9%	23.3%
3	Elpida	776	774	0.3%	12.4%	12.0%
4	Micron	729	778	-6.3%	11.6%	12.1%
5	Nanya	288	232	24.1%	4.6%	3.6%
6	Winbond	118	117	0.3%	1.9%	1.8%
7	Power chip	72	6	1053.1%	1.1%	0.1%
8	ProMOS	38	40	-4.8%	0.6%	0.6%
	기타	153	143	6.8%	2.4%	2.2%
	총합	6,271	6,453	-2.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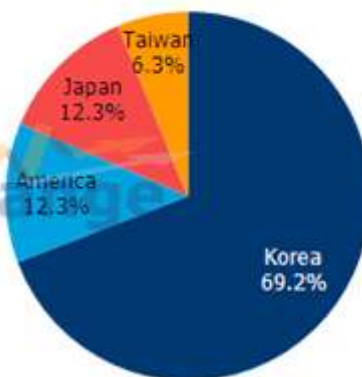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2011. 5.

국가별 D램 시장 점유율

2012년 1분기



2011년 4분기



자료: DRAmExchange, 2011. 5
주: 기타 기업 비중 제외.

□ 1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119.6억 달러 기록

- 1분기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는 지속됐으나, 메모리반도체 부진으로 전년동기 122.1억 달러보다 2% 하락한 119.6억 달러 수출
 - D램(25.8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 단가는 Elpida 파산 신청이후 1달러를 회복했으나, 전년대비(△45.7%)로는 여전히 낮아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 낸드플래시(5.1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는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 시스템반도체(19.9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모바일AP (Application Processor) 수출 증가로 31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수출을 견인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반도체		메모리				D램		낸드		시스템반도체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11. 1	40.9	23.9	21.8	11.3	11.5	△16.2	2.5	20.8	13.8	36.9		
2	36.5	9.2	18.8	△2.8	11	△14.7	2.2	8.3	12.2	16.4		
3	44.7	10.6	23.4	2.6	12.8	△14.8	2.7	10.9	15.1	22.2		
'11.1분기	122.1	14.2	64.0	3.7	35.3	△15.8	7.4	12.1	41.1	24.5		
4	41.6	△0.4	22.2	△9.6	12.5	△22.2	2.9	13.9	13.7	11.5		
5	41.8	△4.7	22.1	△15.3	12.5	△28.7	3.2	34.7	14.3	10.8		
6	42.1	△3.9	21.3	△15.8	12.2	△27.0	2.4	1.1	15.2	14.8		
2분기	125.5	△3.1	65.6	△13.7	37.2	△26.0	8.5	16.4	43.2	12.5		
7	40.4	△12.5	18.2	△31.1	10.1	△43.3	2.6	8.4	15.9	12.8		
8	41.1	△13.3	17.5	△37.4	9.8	△48.1	2.7	9.4	17.4	22.1		
9	45.9	△3.8	18.6	△30.0	9.5	△45.5	2.9	28.2	21.3	39.1		
3분기	127.4	△9.8	54.3	△32.9	29.4	△45.7	8.2	15.5	54.6	25.2		
10	43.5	△4.5	18.1	△26.0	8.9	△45.5	2.9	35.9	20.3	34.8		
11	40.8	△1.3	17.3	△14.4	8.5	△33.1	2.7	18.6	18.9	21.2		
12	42.8	△0.7	16.1	△24.9	8.7	△30.4	2.5	0.6	21.4	39.1		
4분기	127.1	△1.8	51.5	△22.2	26.1	△37.4	8.1	19.1	60.6	31.5		
'12. 1	37.7	△8.1	14.7	△32.5	8	△30.8	1.9	△22.1	18.5	33.4		
2	38.8	6.3	15.2	△19.1	8.1	△26.9	1.6	△27.4	18	47.3		
3	43.1	△3.6	17.6	△24.9	9.7	△24.1	1.6	△41.8	19.9	31.3		
'12.1분기	119.6	△2.0	47.5	△25.8	25.8	△26.9	5.1	△31.1	56.4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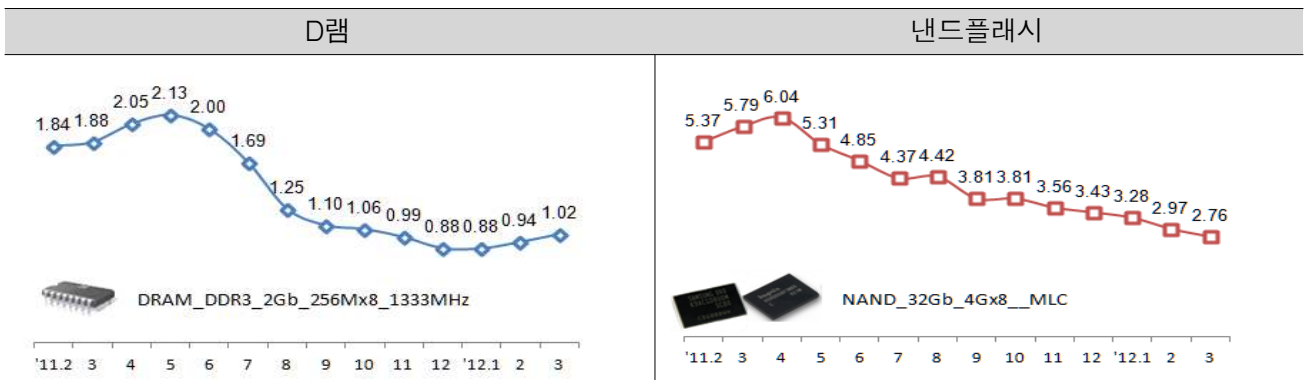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2. 전망 및 주요 이슈

□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 안정 본격화로 한국 기업 수혜 늘어날 전망

-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1, 2분기의 영향으로 거래가 부진한데다, 업체 간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지속
- 그러나 업체들이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고,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는 5월부터는 스마트폰 업체들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잇따르면서 임베디드 낸드플래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
- * 삼성전자는 낸드 라인을 시스템LSI(시스템반도체) 라인으로 전환 중이고, 도시바/샌디스크는 신규 라인 램프업(물량을 늘려가는 과정) 계획을 지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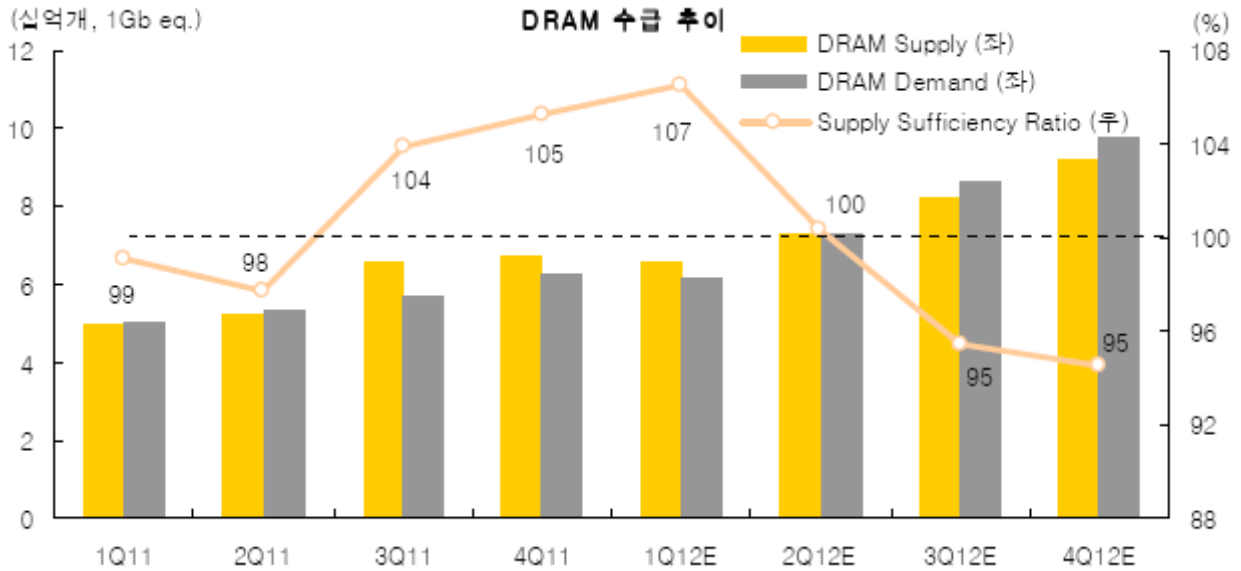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DRAMeXchange, 2012. 3.

- D램 가격은 D램 시장점유율 3위인 엘피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반등 전환
- 엘피다는 파산보호 신청 이후 원자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급량을 줄인 상태
-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히로시마 Fab의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분할 등을 통해 투자 최소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는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안정화의 수혜를 얻게 될 전망
- 또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1-2위 기업들이 PC D램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대만 등 후발업체들도 지난 3분기 대

대적인 감소 이후 증산 폭이 크지 않아 PC D램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

-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PC 수요가 높았던 점 등을 반영하면 D램 가격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미국 마이크론, 일본 엘피다 인수로 한국 기업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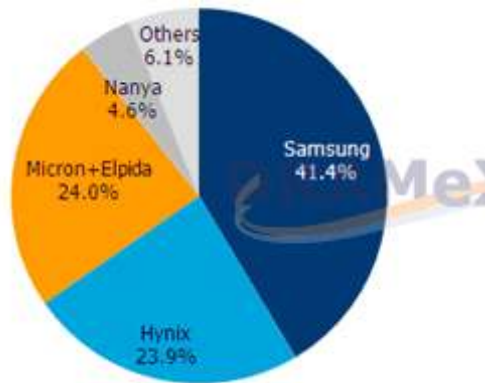
- 현재 법정 관리 중인 일본 엘피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국 마이크론사가 선정됨.
- 4월에 진행된 엘피다 1차 인수 입찰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중국의 호니캐피털이 참여했으나 2차 인수 입찰에는 마이크론과 호니캐피털만 참여
- 마이크론은 히로시마와 아키타현의 공장을 존속시키고 기존 직원들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됨.
- 일본 언론에 의하면 마이크론은 엘피다의 재정개선을 위해 1000억엔 이상을 투입하고, 협력사와 채권단 부채 상환에 800~1000억엔을 지원할 예정
-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의 엘피다를 인수할 경우 합병의 시너지는 높을 것으로 전망
-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면 전체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1년 4분기 기준 24%로 높아져 SK하이닉스(23.9%)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됨.
- 모바일D램 점유율도 12.8%로 상승해 SK하이닉스(15.0%)에 근접
- 특히 엘피다는 고부가가치인 서버용 D램의 비중이 8%밖에 되지 않는 반면

마이크론은 서버용 D램 비중이 20%로 높고, 엘피다는 모바일 D램에 강점이 많은 반면 마이크론은 낸드플래시에 강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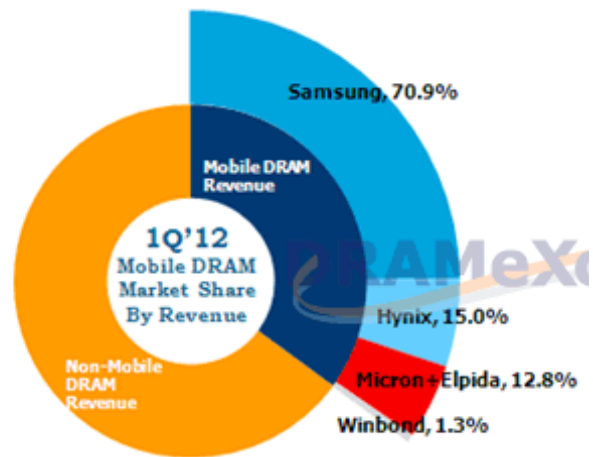
- 특히 엘피다는 그동안 세계 5위 D램 업체인 대만 난야(점유율 4.6%)와 손잡는 방안을 모색한 상황이었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일본, 미국, 대만의 연합군이 한국기업에 도전하는 형국으로 변모
- 특히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갈 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모바일 D램 시장 때문
 - 과거에는 D램의 최대 수요처가 PC였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지난 1분기 모바일 D램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마이크론은 모바일 D램 3위 기업인 엘피다(시장점유율 8.8%)를 인수함에 따라 기존의 낸드플래시 칩 생산능력을 활용해 스마트폰용 MCP(Multi Chip Packaging)를 생산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화

〈D램 전체〉



〈모바일 D램〉



자료: DRAmEXchange, 2012. 5.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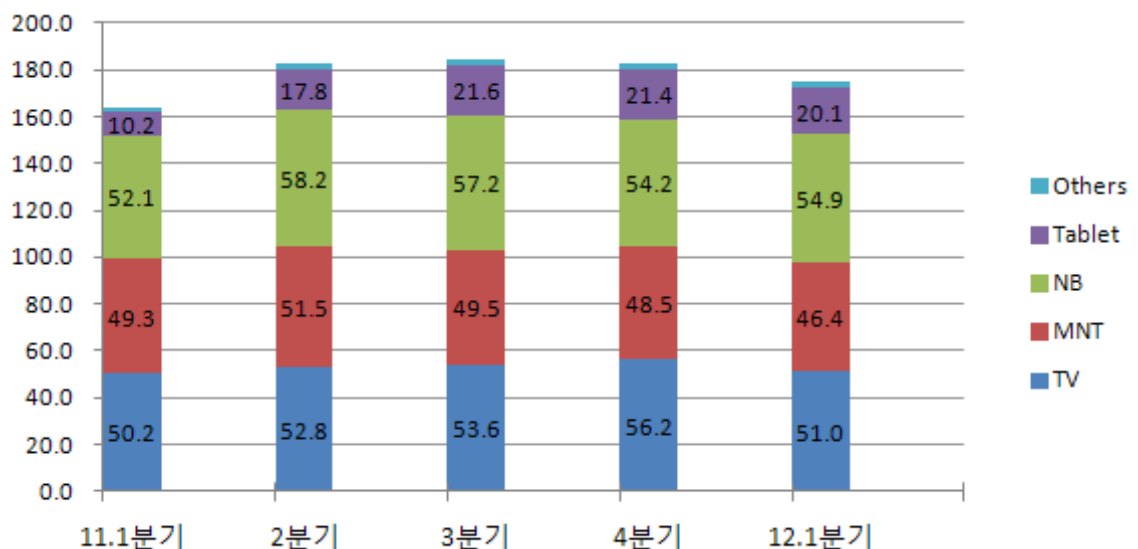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1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 전년동기대비 6.9% 상승한 1억 7,490만대

- 시장조사기관 DisplayBank에 의하면, 2012년 1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 7,49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 전 분기에 비해서는 4.5% 줄어들었으나, 월별로는 실적이 저조했던 1월 이후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증가세를 보임.
- 2분기에는 각 패널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을 예측하고 있음.
 - 하반기 수요에 대비한 셋트업체들의 재고 확대와 함께 런던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도 수요 증가에 기여할 전망

대형 TFT-LCD 패널 출하대수 추이

단위: 백만 대



	'1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 1분기
TV	50.2	52.8	53.6	56.2	51.0
모니터	49.3	51.5	49.5	48.5	46.4
노트북	52.1	58.2	57.2	54.2	54.9
Tablet	10.2	17.8	21.6	21.4	20.1
Others	1.7	2.1	2.4	2.6	2.5
합계	163.5	182.4	184.3	183.0	174.9

자료: Displaybank

- 연말 수요가 집중되었던 12월의 영향으로 1월에는 전체 출하대수가 전월 대비 10.3%나 떨어졌지만, 2, 3월에는 신학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
- 애플리케이션별로는 TV용 패널이 2월에는 전월 대비 6.7%, 3월에 18.7%의 증가세를 보여 호조세 시현
 - 글로벌 업체들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수요를 확대하고 중국 노동절 대비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
- 반면 지난해 증가세를 보였던 태블릿PC용 패널은 전 분기에 비해 6.1% 감소
 -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3 출시를 앞두고 구모델인 9.7인치 패널의 구매량을 줄인데다, 킨들 파이어, 누크 태블릿 등 저가형 제품들이 이끌었던 7인치 제품의 출하량도 크게 축소된 영향

판매 평균 사이즈 및 인치당 평균 판매 가격



자료: Display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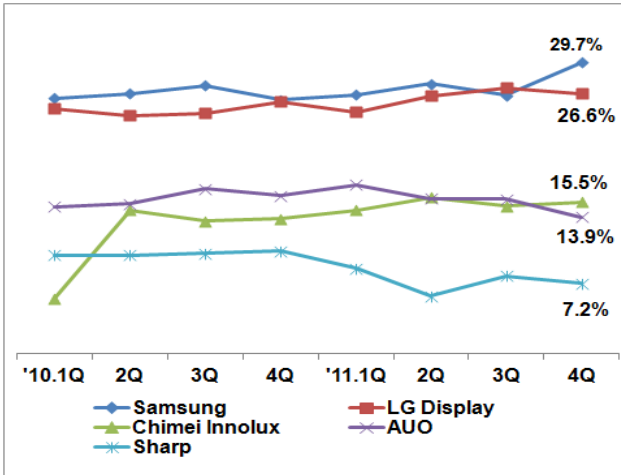
- 전체 평균 판매 사이즈는 1월 23.78인치, 2월 23.59인치로 하락하다 3월에 TV용 패널이 증가하면서 24.65인치로 크게 증가
 - 인치당 평균 판매 가격은 0.15달러와 0.16달러 사이를 오가며 횡보세를 보임.

□ 일본, 대만 등 후발 주자의 견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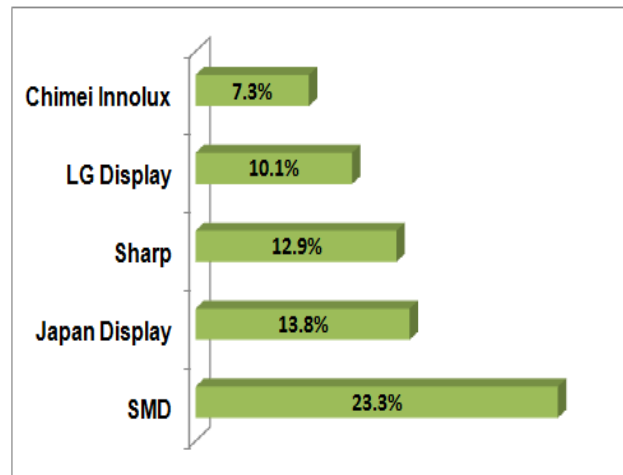
- 현재 대형 LCD패널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56.3%), 대만(29.4%) 등으로 한국이 압도적

주요 업체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

<대형 LCD 패널>



<중소형 LCD 패널>



자료: DisplaySearch, 지식경제부 재인용

-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독주 속에서 일본 샤프와 대만 홍하이 그룹(폭스콘, CMI 모회사)이 LCD 사업과 관련해 지분인수 및 LCD 패널공급 사업제휴에 전격 합의
 - 특히 홍하이 그룹 자회사인 세계 3위 LCD 업체 CMI와 샤프의 대형 LCD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22.7%로 업계 2위인 LG디스플레이(26.6%)에 육박하는 수준
 - 이에 따라 대만 LCD 업체들은 2위 그룹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나설 전망
- 일본 역시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통합 법인인 재팬디스플레이 출범('12.4월)을 통해 '12년 2분기 이후 중소형 LCD 패널 및 OLED 시장에서 국내 업체와의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임.

□ 1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한 70.7억 달러 기록¹⁾

- 1분기 패널 수출은 70.7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75.2억 달러보다 6%, 전분기 81.1억 달러보다는 12.7% 감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 둔화 및 이구환신(以舊換新) 종료(전자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11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른 중국 수요 부진의 영향
- 글로벌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와 해외 생산거점 수출 증가로 인해 모바일용 패널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 수출증가율(%) : ('11.10) 230 → (11) 127 → (12) 314 → ('12.1) 221 → ('12.2) 271 → (3) 298
- 향후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4월~5월초) 추진,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국의 수입 관세가 4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중국은 32인치 이상 LCD TV 패널 수입관세를 2012년 4월부터 3%에서 5%로 인상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2	3
금액	28.9	27.3	26.5	25.6	22.6	27	26.3	27.1	26.4	25.2	25.2	27.6	29.2	26.6	25.3	22.7	23	25
증감률	8.7	9.5	0.8	4	△33	△49	△73	△68	△82	△21.2	△21.2	△37	1.1	△2.5	△4.6	△11.2	2	△6.6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금액	82.7			75.2			79.8			78.0			81.1			70.7		
증감률	6.3			△1.4			△7.5			△15.6			△1.9			△6.0		

자료: 지식경제부

주: 부분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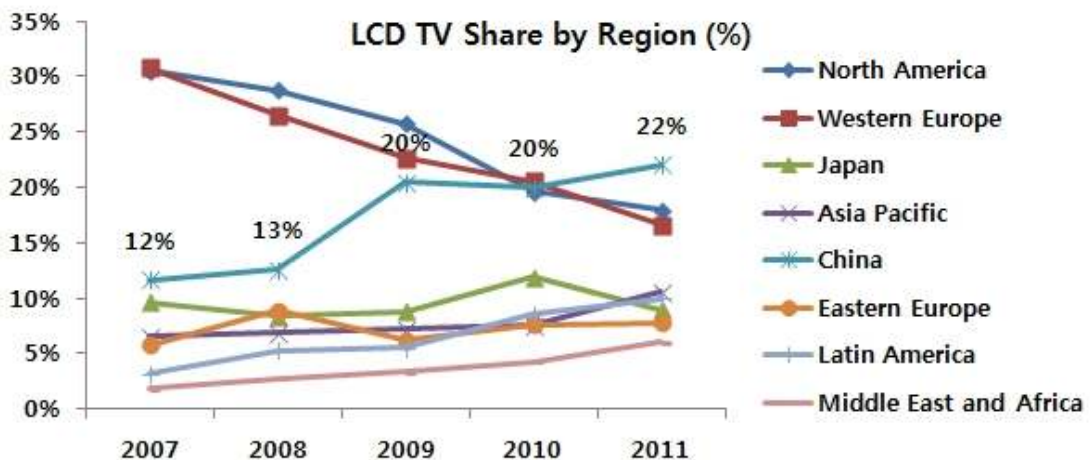
1) 부분품 포함 수치

2. 전망 및 주요 이슈

□ 공급 제한·수요 상승 이어지며 2분기부터 수급 안정화 전망

- 과잉공급 탓에 6분기 연속 디스플레이 시장이 위축되면서 패널 업체들은 현재 수익성 악화 상태에 빠졌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업체들은 대면적 패널 생산으로 교체, 신기술 적용 등을 시도하며 공급 조절 중
 - 생산된 패널을 싼 가격에 넓은 면적으로라도 팔아야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
 - 이와 함께 제품 차별화 및 원가 절감 등을 위해 Oxide TFT, 구리 공정, Gate in Panel, Color Filter on TFT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공정이 까다로운 신기술 특성상 적용 초기에는 수율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됨.
- 이와 함께 유럽 지역을 제외한 북미, 중국 및 기타 신흥국의 TV 수요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현재 LCD TV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제조업 지수나 소매판매 지표가 개선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추세
 - 중국은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 연장 등 정부의 강력한 소비부양정책추진으로 소비 확대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세계 LCD TV 시장에서의 수요 비중(현재 22%로 1위)도 늘어날 전망

지역별 LCD TV 시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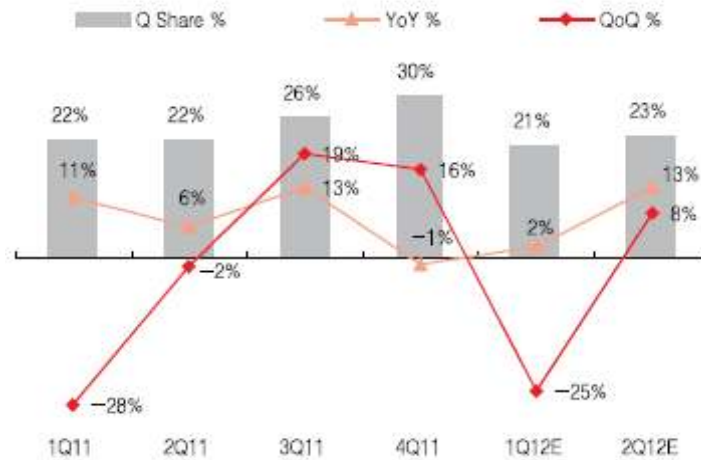


자료: DisplayBank

- 특히 LCD 수요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보다 높은 특성을 보여왔고, 올

해에는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도 있어 3분기부터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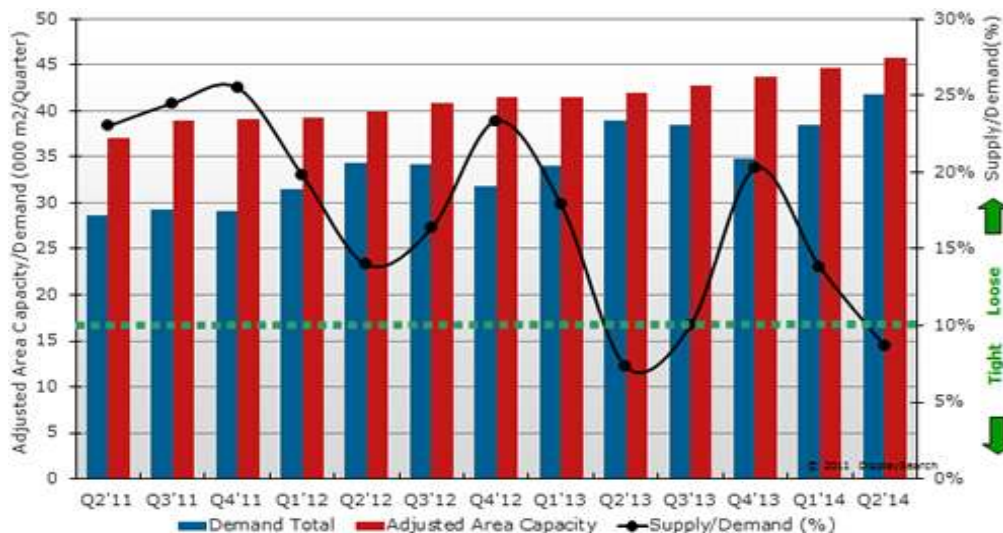
분기별 TV 수요 비중과 계절성



자료: Witsview, 하이투자증권에서 재인용

- 이에 따라 DisplaySearch 등 시장 조사기관에서는 올 2분기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이 수급 안정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올 4분기 경 다소 수요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기는 하나, 2013년부터 장기적으로 수급 격차가 10% 이내로 떨어져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LCD 패널 수요 공급 전망



자료: DisplaySearch, 하이투자증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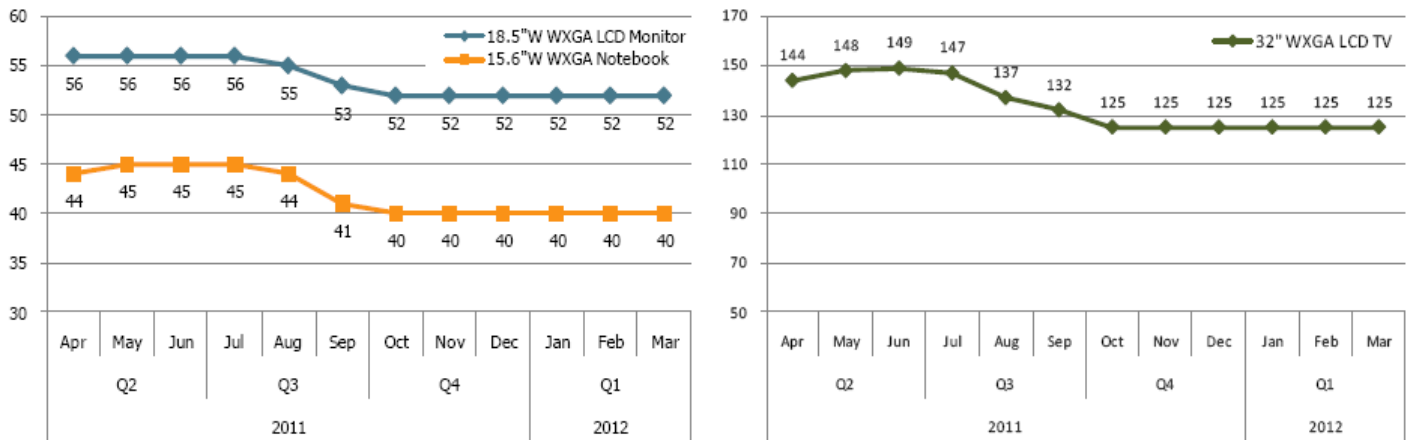
□ 패널 가격도 2분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지난해 3분기 전반적으로 패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후,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 및 안정 재고 유지 노력으로 2011년 4분기부터 패널

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

LCD 패널 가격 동향

단위: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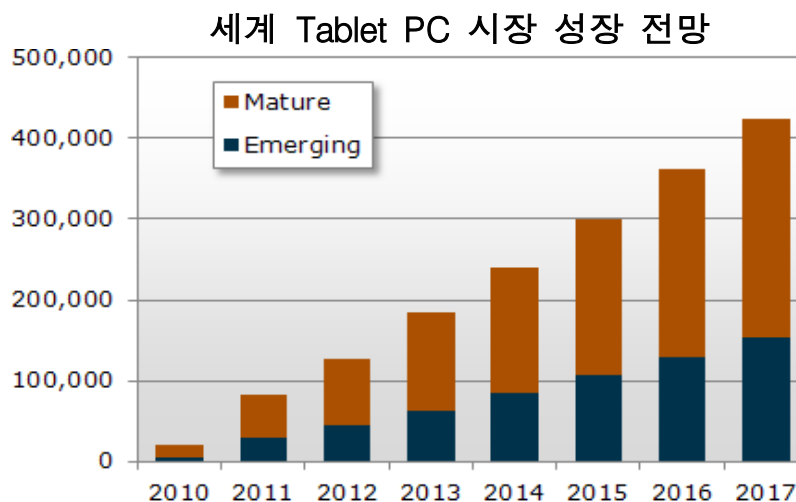


자료: Displaybank, 2102. 4

- 이러한 추세에 수요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를 앞두고 2분기부터 패널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의 축은 태블릿 PC와 O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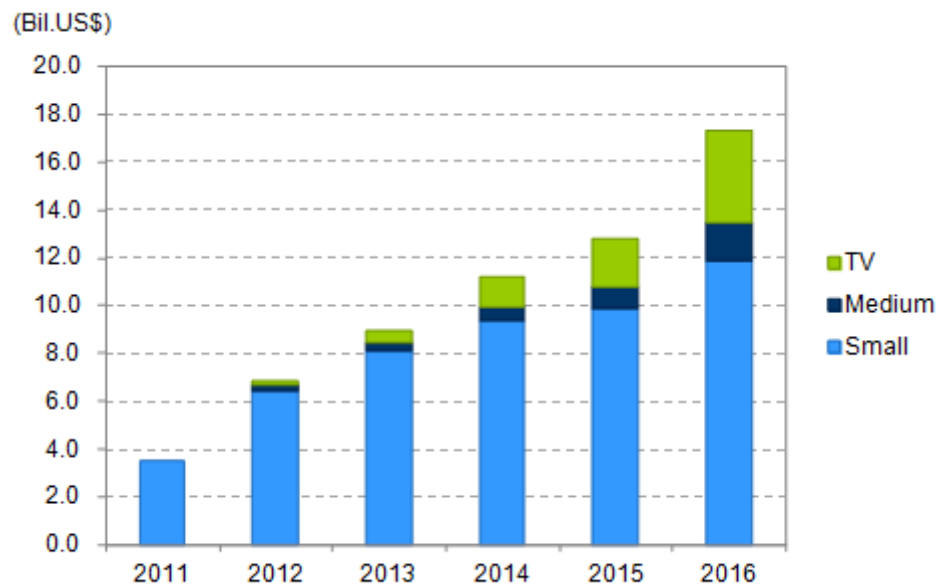
- 특히 중소형 LCD 패널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화 진전 및 교체 수요 확대, 태블릿PC 및 울트라북이 기존 노트북 시장을 대체하며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8,160만대 수준이었던 태블릿 PC 시장은 2017년까지 약 4억 2,490만대까지 성장할 전망
- 2013년에 약 1억 6,890만대~1억 8,42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는 노트북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자료: DisplaySearch

- 또한 색재현력이 우수하고 저전력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을 구현하는데 유리한 OLED는 올 하반기 55인치 TV를 내놓으며 크게 성장할 전망
- 2011년 약 35억 달러 규모였던 OLED 시장은 2012년에는 6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는 2011의 5배 수준인 17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분기 시장규모는 14억 8,80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0% 성장

AMOLED 시장 성장 전망



자료: Displaybank

- OLED 시장 성장이 코앞에 다가오자 일본, 대만은 물론 OLED 매출의 90%를 차지해온 한국 기업들도 모두 기업 재편에 나섬.
- 한국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AMOLED 시장에 하반기부터 대만 업체인 AUO와 CMI가 진입할 예정이며, 4월에 출범할 재팬디스플레이도 궁극적으로 AMOLED 시장에 초점
- 삼성전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OLED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연매출 22조원이 넘는 LCD 사업부를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시키고, 7월경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에스엘시디 등 3개사를 삼성디스플레이로 합병하기로 결정
- 한계 업종인 LCD 사업 비중을 줄이고 차세대 유력업종인 OLED 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결정

IV. 휴대폰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1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전년동기 대비 3.3% 성장

-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SA)에 의하면 2012년 1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3억 6,800만대로 2011년 1분기 3억 5,640만대에 비해 3.3% 성장
 - 주요 선진 시장인 서유럽, 북미 시장 위축의 영향
- 삼성전자는 9,350만대의 출하량으로 시장점유율 25.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노키아를 꺾고 세계 1위를 차지
 -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지 5년 만에 노키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 업체로 등극
-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세계 1위를 고수했던 노키아는 1분기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23.8% 감소한 8,270만대로 줄어들면서 2위로 내려앉음.
 - 노키아의 부진은 이머징 마켓의 피쳐폰 시장 축소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루미아 폰이 이전 심비안 폰의 실패를 크게 만회하지 못하면서 발생

2012년 1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1Q 2012		1Q 2011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93.5	25.4%	68.9	19.3%	35.7%
2	노키아	82.7	22.5%	108.5	30.4%	-23.8%
3	Apple	35.1	9.5%	18.6	5.2%	88.7%
4	기타	156.7	42.6%	160.4	45.0%	-2.3%
	합계	368.0	100.0%	356.4	100.0%	3.3%

자료: SA, 2012. 4

- 애플 역시 출하량이 전년동기의 거의 두 배 수준인 3,510만대로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사상 최대인 9.5% 기록
 - 미국과 일본에서 아이폰4S에 대한 시장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최근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4S를 성공적으로 론칭함에 따라 판매 호조가 이어짐.

- 아이폰4S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으나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경우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전년동기 대비 41% 성장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1위

- 2012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1년 1분기 1억 300만대에 비해 41.1% 성장한 1억 4,530만대
 -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5%
-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S2, Y 등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에 출하량 4,450만대로 시장점유율 30.6% 차지
 -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53.2% 증가한 것으로, 휴대폰 시장에 이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세계 1위 차지
- 애플은 출하량을 전년동기 대비 88.7% 늘리면서 시장점유율 24.1%로 세계시장 2위 차지한 반면, 노키아는 전년동기에 비해 출하량이 5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점유율 8.2%로 3위에 머무름.
 - 애플은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핵심 시장에서 점유율 강화하고 있는 반면, 윈도우폰 OS를 채용한 노키아의 루미아폰은 미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는 했지만 판매량은 아직 저조한 수준
- 2012년 1분기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며 과점 체제를 형성
 - 기타 업체 가운데에서는 RIM이 시장점유율 약 6.7%, HTC가 4.8%를 차지

2012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1Q 2012		1Q 2011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44.5	30.6%	12.6	12.2%	253.2%
2	Apple	35.1	24.1%	18.6	18.1%	88.7%
3	노키아	11.9	8.2%	24.2	23.5%	-50.8%
4	기타	53.8	37.1%	47.6	46.2%	13.0%
	합계	145.3	100.0%	103	100.0%	41.1%

자료: SA, 2012. 4

□ 1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한 42.6억 달러 기록²⁾

- 1분기 휴대폰 수출은 42.6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65.3억 달러보다 34.8% 감소
 - 전 분기 53억 달러보다도 19.6% 감소
-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모두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계획 확대에 따른 국내 휴대폰 생산 감소로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
 -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11년 1분기 69%에서 4분기에 80.1%로 확대
- 스마트폰(24.5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8.9%)과 피쳐폰(2.6억 달러, △80.2%), 부분품(15.6억 달러, △38.1%) 수출이 모두 감소했으나, 특히 피쳐폰 감소가 두드러짐.
 - 피쳐폰 수출은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1억 달러 아래로 하락한 가운데, 스마트폰 수출도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8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2	3
휴대폰 (부분품 포함)	23.8	19.8	21.7	23.2	24.4	22.2	21.8	20.7	20.4	19.1	18.8	15.1	14.4	13.3	14.9
	11.9	5.6	5.8	31.9	38.9	17.9	15.1	10.2	△3.1	△28.0	△29.9	△32.5	△39.3	△32.5	△31.2
스마트폰	9.5	9.2	8.2	12.2	12.5	8.2	7.6	6.5	8.3	9.9	10.5	7.9	8.7	7.3	8.5
	452.8	396.5	260	517.7	323.4	62.3	41.7	3.9	0.7	△14.0	△16.7	△29.2	△13.2	△26.2	△8.5
피쳐폰	4.9	3.9	4.3	3.2	3.7	5.4	3.2	2.6	2.7	2.5	2.1	1.8	0.7	1	0.9
	△47.4	△56.8	△57.0	△63.4	△45.6	△22.2	△44.8	△45.0	△36.6	△60.0	△64.5	△56.9	△84.2	△69.2	△73.2
부분품	9.4	6.7	9.1	7.8	8.2	8.6	10.9	11.6	9.4	6.7	6.2	5.4	5	5.1	5.5
	△7.8	△14.7	11.7	13.2	5.7	26.1	41.5	48.3	9.9	△23.8	△25.6	△23.3	△46.6	△24.4	△39.3
전체	1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 1분기		
금액	65.3			69.8			62.9			53			42.6		
증가율	8.1			29.3			7.0			△30.0			△34.8		

자료: 지식경제부

2) 부분품 포함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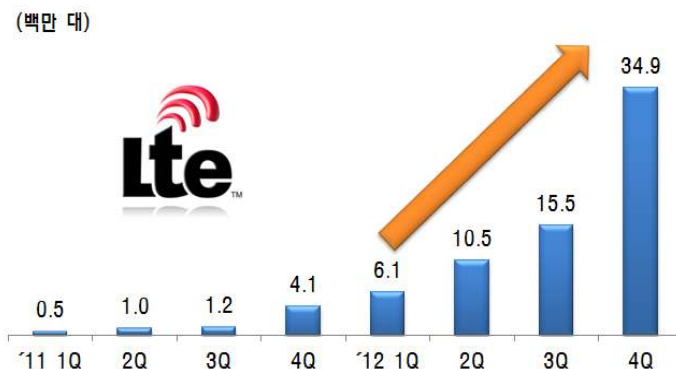
2. 전망 및 주요 이슈

□ LTE폰 등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속화

- 2012년 휴대폰 산업은 선진국 시장에서 LTE폰의 본격적인 보급 확대와 신흥시장에서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산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현재 LTE폰은 2011년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상용화되면서 약 680만대가 판매되었으나, 올해에는 서유럽 시장 상용화 등을 통해 현재 수준의 10배인 6,700만대까지 성장할 전망
- SA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LTE폰의 비중(%)은 한 자리수이지만, 올해 안에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스마트폰에서 LTE폰 비중(% SA) : ('11.1Q) 0.5 → (2Q) 0.9 → (3Q) 1.0 → (4Q) 2.6 → ('12.1Q) 4.3 → (2Q) 7.0 → (3Q) 9.4 → (4Q) 18.1

LTE폰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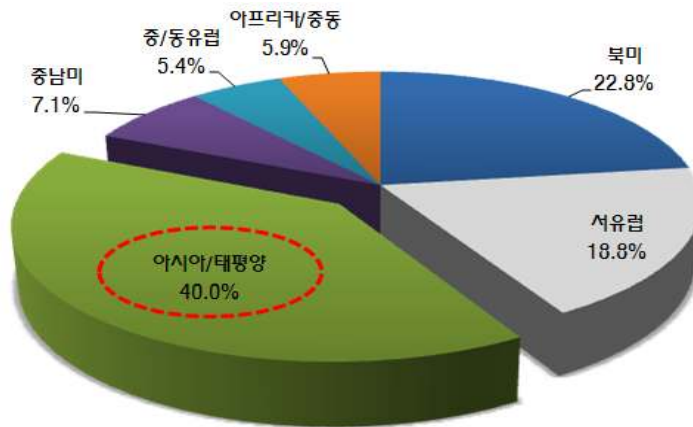


자료: SA, 지식경제부에서 재인용

-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3사는 모두 LTE 스마트폰을 출시해 각각 시장점유율 37.5%, 16.2%, 5.9%를 차지
- 이밖에 HTC, 노키아 등이 이미 LTE폰을 출시했으며 올해 안에 애플과 모토로라, 후지쯔 등도 LTE폰을 출시할 전망
- 특히 노키아는 미국 제2의 통신사업자인 AT&T를 통해 첫 LTE폰인 루미아 900을 안드로이드 LTE폰의 절반 가격인 99달러에 출시하는 등 LTE폰을 통한 시장 반격을 노리고 있음.
- 이와 함께 휴대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중국의 이동통신가입자가 2012년 3월 기준으로 10억명을 돌파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20.6%)을 누르고 중국(20.7%)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
- 현재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4.3%로 1위, 노키아 19.6%, 화웨이 12.6%, ZTE 11.1%, 애플 7.5% 순 ('11.4분기 Gartner)

2012년 지역별 스마트폰 시장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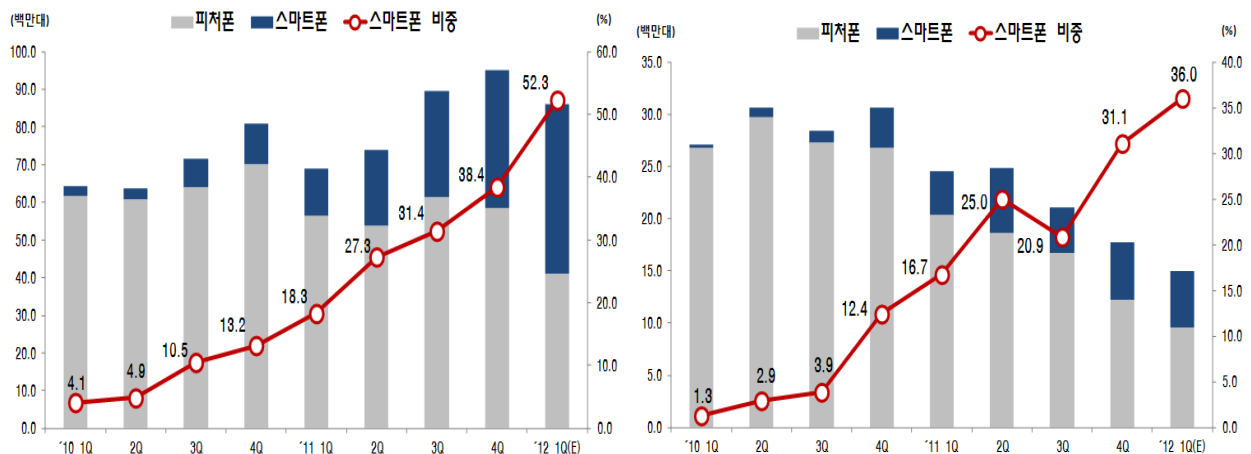


자료: SA, 지식경제부에서 재인용

□ 국내 업체 스마트폰 출하 증가 속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

-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어 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12년 1분기에 전체 휴대폰 생산 중 스마트폰 출하 비중이 52.3%로 확대되었으며, LG전자도 스마트폰 대응을 강화하면서 '12년 1분기 스마트폰 비중이 36.0%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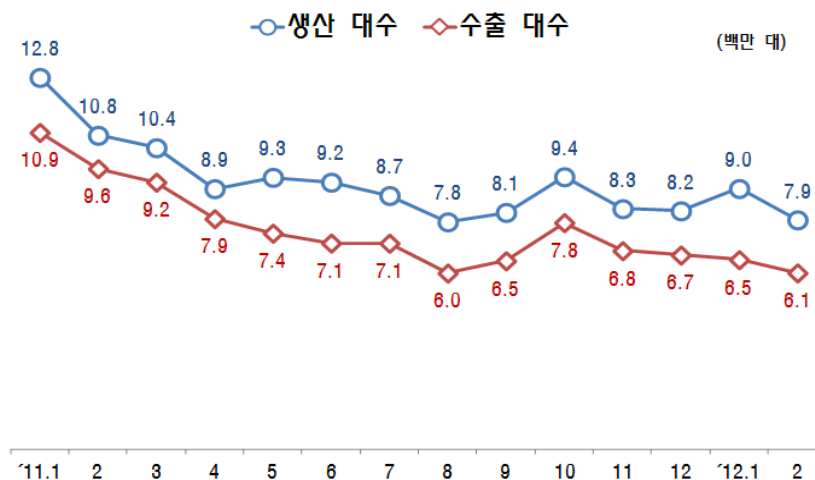
삼성전자(좌)와 LG전자(우)의 스마트폰 비중 추이



자료: NIPA, 2012. 4

- 스마트폰 비중을 높이면서 피쳐폰 생산은 줄여 전체 휴대폰 출하 대수는 줄어드는 추이
- 특히 국내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 확보, 시장 적기 대응 등을 이유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생산거점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수출 감소가 지속됨.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년 2월 국내 휴대폰 생산은 790만대, 수출은 610만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과 수출량이 두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음.

국내 휴대폰 월별 생산 및 수출 추이 (대수 기준)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에서 재인용

- '11년 하반기 기준 휴대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80.6%, 스마트폰은 70.8%로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해외생산 비중('11년 기준, %) : 휴대폰 77.0 ('11.상 72.9 → '11.하 80.6)
/ 스마트폰 58.9 ('11.상 38.3 → '11.하 70.8)

- 해외 생산 비중 증가에 의한 수출량 감소는 월간 기준 약 7~8억 달러의 감소 효과 추정
- 단가가 비싼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감소 효과를 다소 상쇄한다고 해도 수출액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